

TV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코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첫회)	30 KBC 모닝와이드
8 00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자전거 55 튜튼생활제	40 출발 드림팀 시즌2(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2014 ITU 전권회의 특별기획 글로벌포럼	50 월화 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재)	00 MBC 여성토론 위드	10 KBC 생활뉴스 30 영성기획 한국의 명소
12 3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요말		10 MBC 정오 뉴스 20 문화사색	00 SBS 12뉴스 3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1 30 뉴스 특급	00 제95회 전국체육대회	00 한국인의 밥상(재)	10 MBC 네트워킹특선 <종류>	30 날씨와 생활 35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2 40 직언직설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규(재)	05 다규+감성	
3 55 정용관의 시사병법	00 KBS 뉴스 1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요고통합안보 분야>	00 키오카(재) 30 자중 공부책임 위키	00 MBC 경제뉴스 10 내 사랑 동 40 헬로키즈 아하 과학탐험대	00 SBS 뉴스 10 우리야기가 달라졌어요(재)
4 55 하종대의 쾌도난마		00 TV우치원 콩다콩 30 두리둥실 몽개공방2(재)	30 푹?푹! 키즈쿨	00 공의 라이벌 프리즐 스톤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 지오 그래픽	00 외계 가족 줄리폴리 20 인간극장 스페셜 <그대 그리고 나 1부>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결론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15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덕터 365 10 KBC 생방송투데이
7 20 닥터 지 바고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뽀꾸기 동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치!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8 20 내조의 여왕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	00 월화 특별기획 <오만과 편견>	00 SBS 대기행 <비밀의문>
11 00 부부극장 공작지(재)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MBC 다크스페셜 <신해철 추모다큐>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10 모큐드라마 싸인(재) ①:20 라이벌 매치 압도적7	20 T타임 50 일약특목 ①:10 다크극장(재)	2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해외걸작드라마 <아틀란티스> ①:25 특파원 현장보도(재)	15 MBC 뉴스24 35 스포츠 다이내믹 5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5 니이트 라인 ①:05 SBS 골프



# “삼둥이’ 덕에 더 유명해졌어요”

송일국, ‘슈퍼맨이 돌아왔다’로 최고 전성기

“세 쌍둥이를 데리고 소아과에 갔는데 그중 하나가 ‘불일’을 봐서 기저귀를 갈아야 했어요. 제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니 아기 엄마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는 식의 시선을 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기저귀를 딱 가니깐 다들 놀라는 분위기가 있었죠.”

아기 기저귀를 척척 가는 모습을 재연하는 그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다. 이제는 ‘삼둥이 아빠’로 더 유명한 배우 송일국(43)을 만났다.

송일국은 결혼 4년 만인 지난 2012년 세 쌍둥이 대한, 민국, 만세를 낳았다.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한 어머니(김용중 의원)가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친 것이 아이들의 이름이 됐다.

요즘 일요일 오후 안방극장은 이 가운차고 해맑은 세 쌍둥이에게 온통 정신이 팔려 있다. 막대한 정장을 갖추 입었지만 ‘삼둥이 아빠’ 잔상이 강한 송일국에게 지난 7월 아내 없이 아이를 돌보는, 연예인 아빠들의 육아기를 담은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게 된 계기를 물었다.

“방송사로부터 1년 전부터 계속 제의를 받았어요. 정말 지겨울 정도로요.(웃음) 아내네 정말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저도 아이들이 고생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러나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어느 정도 자란 아이들과 정말 하고 싶은 경험도 하고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그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다고 했다.

“어른이 3명 이상 있어야 식당이라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크는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도 크게 작용했다.

송일국과 세 쌍둥이의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은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가 됐다. 사람들이 송일국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됐고 아이 셋을 온몸에 주렁주렁 매단 채 인전아시아게임 성화 봉송에 나선 그의 모습은 인구가 회자됐다.

“성화 봉송 때 인기를 실감했죠. 원래는 아이들이 태운 수레를 끌려고 했어요. 당일 아침에 문득 생각해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같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저랑 떨어져 불안해질 것 같아서 붙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송일국에게 지금과 같이 큰 인기를 누리는 소감을 묻자 씩스런 표정과 함께 “인기는 대한, 민국, 만세가 있는 것이고 저는 거기에 얽혀 있는 거죠”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이어 “아저씨나 에 아빠 이미지로 강하게 각인됐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면서 “그동안 제 이미지가 실제와 다르게 많이 강했다는 것을 새삼 느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때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고충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신기할 정도로 2012년 초부터 작품이 안 들어왔어요. 제가 그 이전에 점점 내리막을 걷는 상황이기도 했고, 독도 수영 횡단을 한 것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계속 작품이 없었어요. 세 쌍둥이가 돌이 될 때까지 너무 고생했죠.”

그는 ‘마음에 드는 작품이 안 들어왔다는 의미 아니냐’는 물음에 눈을 크게 뜨더니 “아니요. 정말 1년 동안 작품이 안 들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잔치하고 나니 거짓말 같이 광고 제의부터 들어왔다. 그 1년간 아내보다 더 열심히 육아를 했던 것이 이렇게 보상받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웃었다.

“육아를 잘 하지는 않고 노력하는 수준”이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인 송일국은 세 쌍둥이 하나하나를 떠올릴 때마다 눈빛을 반짝였다.

그는 “그렇게 3명 다 다르게 낳으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것 같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대한이는 변비, 민국이는 설사, 만세는 정상이다. 그래서 키우는 재미는 있다”고 말했다.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혼났지만 아이를 더 낳고 싶다”고 말한 송일국은 “다음 아기가 딸이라는 보장만 있으면 낳을 텐데 아니면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웃음을 보였다.

어느덧 아빠가 되고, 아이들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이 인간 송일국에게나 배우 송일국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물었다.

“제 스스로 확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주위에서 기쁨기가 많이 빠졌다고들 말씀하세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바뀌었나 봐요.”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부모광장)	14:15 우당탕탕 아이쿠	17:45 두다다콩
05:40 나의 성공비결	10:10 EBS 특강	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4:45 코코몽2	19:00 지피터스
07:00 코코몽2(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00 신나는 오정 학교	19:30 EBS뉴스
07:15 놀이터 구조대 번영(재)	11:20 세계테마기행 <울라! 멕시코>(재)	15:15 지구를 지켜라	19:50 EBS 미술기행
07:30 풍선 꼬끼리 발루보(재)	12:00 EBS 정오 뉴스	15:30 올리비아	20:40 다크 오늘
07:45 꼬마버스 타요(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1(재)	15:50 피터 래빗	20:50 세계테마기행 <중부 유럽의 숨은 보석, 폴란드>
08:00 당동당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00 당동당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08:20 두다다콩(재)	13:10 생활백화	16:20 놀이터 구조대, 번영	21:50 EBS 다크프라임
08:35 방귀대장 뽕뽕이	13:40 즐거운 수학 EBSMATH	16:35 오스카의 오아시스	22:35 달라졌어요
08:50 꿈디와 친구들	13:50 사이틴(Sci-teen)	16:45 꿈디와 친구들(재)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09:05 원더 볼츠(재)	14:00 두기 탐험대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24:05 지식채널e(재)
09:20 출동! 슈퍼왕스(재)		17:15 풍선 꼬끼리 발루보	24:10 EBS 인문학 특강
09:35 빼꼼		17:30 꼬마버스 타요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알짜 국어 문법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불교문화	07:00 한국어 능력 시험대비 강좌	16:20 " (국어5-2)
00:50 2013 논술 (인문계 주제별 기출분석)	12:15 7030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수학 1 A형>	07:30 나의 성공비결	16:50 " (국어6-2)
01:40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	13:05 " <국어A형>	08:0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전과목 5-2>
02:30 " <영어-듣기>	14:00 " <홀리 1>	08:30 한경TESAT 시험대비 강좌	
03:20 뉴 탐스런 <생활과 윤리>	14:50 " <화학 1>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8:00 TV 중학 <문학 3>
04:10 " <사회>	15:40 " <생명과학 1>	09:50 " <수학 1(상)>	18:40 " <비문학 3>
05:00 " <한국사상>	16:30 " <지구과학 1>	10:30 " <역사 1>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05:50 2013 포스 <수학 1 A형>	17:20 " <윤리와 사상>	11:10 " <국어③④>	20:00 EBS 기획특강
06:40 압축탐스런 <홀리 1>	18:10 " <법과 정치>	11:50 " <수학 2(상)>	20:50 EBS 기획시리즈 <수학1(상)>
07:30 2014 포스 <문학 1>	19:00 " <생활과 윤리>	12:30 등업스공 <수학2(상)>	21:40 EBS UCC 공모 나쁘디
08:20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재)	20:00 EBS-N제 <국어 A형>(재)	13:10 " <과학2(상)>	22:00 등업스공 <수학3-2>
09:10 " <영어-듣기>(재)	21:00 " <수학 A형>(재)	13:50 " <과학2(상)>	22:40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중급>
10:00 뉴 탐스런 <사회>(재)	22:00 인터넷 수능 <수학 A형>(재)	14:30 " <수학2(상)>	23:20 중학e포스 영문법 1
10:50 2013 포스 <수학 1 A형>(재)	22:00 <회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15:20 만점왕 <국어3-2>	24:00 백점공략 <수학 1>
		15:50 " <국어4-2>	24:30 " <과학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3일 (음 윤9월 11일 戊寅)	
<b>子</b>	36년생 도모하라. 48년생 뒤돌아 보려하지 말고 앞만 보고 뛰어라. 60년생 늦게까지 이어지겠다. 72년생 의사 표시가 정확해야만 착오가 생기지 않는다. 84년생 반동해 될 것이나 차분하게 지켜보자. 행운의 숫자 : 08, 63	<b>午</b>	42년생 어떠한 지경에 이르러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지켜야 한다. 54년생 시작하면 끝맺음을 잘 해야 한다. 66년생 정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78년생 쉽게 보면 큰일 나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05, 49
<b>丑</b>	37년생 기반이 조성되겠다. 49년생 어중간하셔서 이리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판국에 놀이리라. 61년생 이익이 따르나니라. 73년생 가까운 이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전진이 있다. 85년생 평상심을 유지하자. 행운의 숫자 : 16, 72	<b>未</b>	43년생 서로의 입장이 뒤바뀔 수 있다. 55년생 사전에 대비를 잘 해두어 차질이 없을 것이다. 67년생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 강도가 약한 것이 문제라. 79년생 전체일우의 희귀함을 절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86, 58
<b>寅</b>	38년생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50년생 최대한 활용해야 할 때이다. 62년생 의도대로 행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나 기탄없이 행하고 불일이다. 74년생 현실화 된다. 행운의 숫자 : 79, 85	<b>申</b>	44년생 미리 방책을 세워 두는 것이 백 번 나은 것이다. 56년생 잘 표시해두어야 망각하지 않을 것이다. 68년생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수를 주의하자. 80년생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해 내지 못해서 애를 먹었다. 행운의 숫자 : 69, 15
<b>卯</b>	39년생 이대로 간다면 곤혹스러워할 수 있다. 51년생 외부적 요건에 구애받지 말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낫다. 63년생 자신의 길만 가고 있으면 된다. 75년생 무리한 진행을 할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92, 47	<b>酉</b>	45년생 기본적인 개인 책임부담 확실해 해야 한다. 57년생 통일된 시각과 진중함이 형세를 굳히리라. 69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느니라. 81년생 마무리의 처리가 가치의 고저를 좌우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78, 70
<b>辰</b>	40년생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리라. 52년생 걸림돌이 보이거든 제어하면서 서서히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4년생 최선을 다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 하리라. 76년생 상대로부터 오해받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48, 56	<b>戌</b>	46년생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겠다. 58년생 발효되는 작용과도 같은 이치이니라. 70년생 사소한 이해관계에 집착하다보면 큰일을 못 본다. 82년생 상당히 줄어들겠으니 보충할 것을 찾아 봐야 하겠다. 행운의 숫자 : 90, 35
<b>巳</b>	41년생 인간관계로 인한 기쁨이 대단히 클 것이나니라. 53년생 의견이 분분하니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65년생 잘 살펴서 현명하게 처신해야 할 일이다. 77년생 주저하지 말고 계획대로 실행하자. 행운의 숫자 : 57, 04	<b>亥</b>	47년생 상태를 배려해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롭다. 59년생 큰 계획 속에서 작은 것은 내버려둬도 자연히 해결 되느니라. 71년생 일순간에 성과가 반실할 수도 있는 형세이다. 83년생 계획을 수정하라. 행운의 숫자 : 62, 2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 당당하게 또는 조용하게... ‘물의’ 연예인 컴백

이승연·한예슬 등 잇따라 방송, 드라마 복귀

이승연, 박시연, 한예슬, 봄... ‘지속’의 시간을 규격화할 수는 없다. 그래서인지 자숙의 시간도 질도 항상 ‘자의적’인듯 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연예인들이 최근 잇달아 TV에 컴백하고 있다. ‘물의’를 일으켰던 이들의 컴백은 연예계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새롭지도 않은 일기기에 놀랍지는 않다. 하지만 영향력이 막강한 연예인이기에 돌아온 그들이 반성의 시간을 거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은 ‘의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한예슬, 지상파 드라마 핑크내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복귀=1일 시작한 SBS TV 새 주말극 ‘미녀의 탄생’의 여주인공을 맡아 3년 만에 컴백하는 한예슬(사진)은 2011년 8월 KBS 2TV 드라마 ‘스파이 명왕’ 촬영 도중 무단 핑크를 내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사고를 쳤다.

당시 ‘스파이 명왕’은 여주인공 한예슬의 무단 촬영 거부로 한화가 결판됐다. 한예슬은 촬영을 핑크내고 돌연 미국으로 떠났다가 이를 후에 귀국해 촬영장에 복귀했다. 이 사건으로 열악한 국내 드라마 촬영 여건과 스타 위주의 제작 시스템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방송 드라마 촬영이 거의 생방송 수준으로 진행되는 탓에 촬영사고, 편입사고 등 잦은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배우가 촬영을 핑크내 방송이 결판된 것은 초유의 사태였다. 특히 한예슬의 촬영 거부는 그로 인한 결방과 방송 차질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저질러진 일이었다.

편성 차질로 KBS는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인데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배우가 3년 만에 다시 지상파 드라마로 복귀하는 것이다. 그런 한예슬이 지난 30일 열린 ‘미녀의 탄생’ 제작발표회에서 사과 한마디 없었다.

한예슬이 이날 말이라고는 “3년 만에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영화 촬영 핑크도 아니고 생방송으로 돌아가는 드라마를 핑크내고 아예 미국행 비행기까지 몸을 싣은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모르는 듯 하다. 그런 여배우를 SBS는 주인공으로 다시 캐스팅해 방송을 내보내겠다는 것이다.

◇ 이승연·박시연·봄, 조용히 케이블·중편채널로 복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지난 해 8월 8일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승연과 박시연은 조용히 중편 채널로 돌아왔다.

이승연은 지난 8월 MBN ‘인생고민 해결소-신세계’ 시즌2의 MC를 맡아 복귀했다. 프로포폴 사건 발생 1년 6개월 만의 방송 복귀다.

그는 이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앞으로 살아갈 힘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겪으며 책임의 무게라는 것을 절감했다. 한 사람의 대중으로서 이제는 대중의 눈으로 나를 좀 더 바라봐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눈물을 흘렸다.

박시연은 지난달 TV조선 주말드라마 ‘최고의 결혼’으로 컴백했다. 역시 1년여 만에 복귀한 그는 드라마 출연에 앞선 인터뷰에서 “남 때문도 아니고 제 실수로 인한 것이라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방송인 봄은 지난 30일 밤 11시 방송된 E채널 ‘용감한 작가들’ 게스트 출연을 통해 1년 만에 복귀했다.

그는 방송에 앞서 E채널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을 읽어내려가는 영상을 공개했다.

봄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 받지 못할 잘못을 저지른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고 저를 아껴주셨던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많은 반성을 했다.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연휴뉴스